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7. 10. 11(수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행복주택정책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근오, 사무관 이경민, 주무관 오요셉 • ☎ (044) 201-4514, 4515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행복주택, 3곳 중 1곳은 빈집” 보도 관련

□ 행복주택은 올해 초부터 입주가 본격화되어 아직 **입주 초기 단계**로서,

○ 현 시점에서 행복주택은 **지방을 위주로** 공가율이 타 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, 국민임대 등의 입주추이 등을 감안할 경우 **일정 시일 경과 시 공가율이 하락하고 미계약분도 해소**될 것으로 전망되며,


* 통상 임대주택 공가율은 공가 상태로 **일정 기간이 경과한 주택**을 대상으로 산출하며, LH기준에 따라 공가율 산정 시 행복주택은 **6.8% 수준**(총 4,399채 중 297채로 이중에서 지방은 총 2,557채중 287채 공가)이고 임대주택 평균 공가율은 1.2% 수준임('17.8월말 기준)

○ 정부는 향후 공가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요에 따른 **맞춤형 공급, 공급 방식 다각화**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 (한겨레, 10. 11) >

◆ “박근혜표 행복주택, 3곳 중 1곳은 빈집”

- 행복주택의 빈집 비율은 31.5%로 일반 장기임대주택의 11배
- 획일적 평형 공급(14.2평)과 실수요 반영 대신 목표 달성 위주 사업 추진이 원인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정책과 이경민 사무관(☎ 044-201-4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